朝鮮日報
朝刊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俎上에 오른 朝鮮米
偏見을버리라

一

十五日부터 開催된 農林省米穀關係會議에서는 米穀統制問題가 이러낫는데 政友會에서는 所謂 地域別統制案이란것을 提出하고、民政黨에서는 自主的統制案이라 할만한것을 主張하야 外地米 即 朝鮮米에 移入統制를 하라는데에는 共通하다。地域別統制案이란것은 日本內地의 各府縣과 朝鮮、臺灣等地를 管理의 一單位로하고、그單位의 移出數量에 比例하야 移出量을 制限한다는것이니 얼른 보면 統制를平均히하야 公正한것가트나 事實은 差別的이다。即日本內地에서는 生產府縣과 消費府縣을 한데어리로한 地域의管區를 맨드는데 나누는만큼 今日에 府縣外로 나가는 米數量一千二百萬石이 三四百萬石으로 減少됨에 對하야、朝鮮의 移出米는八百萬石이 그대로 統制의 對象이되는때문이다。그뿐아니라各府縣은 隣接한마음 統制의 手中에서 벗어날수잇스나 朝鮮서는 海路로 下關、大阪等 港口를 經過하기때문에 些少도檢查에서 벗어날수가업다

勿論 政友會案이 반듯이 採用되리라고는 헤지안흐나 如何間 朝鮮米에 對하야 統制를 加하라는것만은 農林省自體도 생각하는것인만큼 또다시 그偏頗함을 論하지안흘수업다

二

大抵 朝鮮에서 日本內地로 產米를 移出하게되는 理由는 農林省 其他 官廳及 政黨이 認識하는가 못하는가。朝鮮은 元來 農業國으로 米生產에適當한 地方이나 特히 米生產이 增大하고 米移出이 激增하게된것은 當局의 政策에依한것이엇섯다。即日本內地의 人口增加率에 比하야 日本內地米의 增產率은적다。그리하야 朝鮮에 彪大한 豫算과 長久한 時日을 要하야 產米增殖計劃을 세우고 또 實行해온것이아니냐。그러기때문에 產米는增殖되고 移出은增大한것이다。

三

勿論 產米增殖計劃은 朝鮮의 米消費量도 念頭에 두흔것은 認定한다。그러나 事實에잇서서 朝鮮人의 米消費量은大正元年 一人當 七斗五升가량되든것이 昭和七年에 와서는도리혀 四斗四升으로 減少되엿다。이것은 米價가高하고 粟價가低廉한때문이엇스니朝鮮의農民은 米를팔고 粟을사서그餘差로써 日本內地의 工業品을消費하는것이다。今後 設使 朝鮮人에게 米食을 시키고저米移入을 制限한대자 粟이一分이 싸거나 아니同價라도 藥으로 만흘진대 滿洲粟을買食할지니 朝鮮米의 消費量은 增加치안흘지오 그反面으로 米의 積滯와 米價의 低落으로 農民의 購買力을 減殺하야 마침내는 日本內地의 工業界에도 打擊을 줄것이다。

四

昨今과가티 滿剩米가 數千萬石을 넘어 米價가 低落될 念慮가 잇스니 統制論이 나올도 無理는 아니다。그러나 今年과 가튼해에도 米統法外에 臨時米穀調節令으로써 政府가 米를 買上하고、長期正租貯藏制度를 써서 能히 米價를 持한것이 事實이 아니냐。況 米作은 年年 豐作이 아니다 今年은 南鮮가 凶作이니 米過剩의念慮는 減少될것이다。그러므로 米穀問題를 解決하라면朝鮮에도 米穀統制法을쓰는 一方 長期貯藏制度、米資上制度를 써서 米價를 調節할것이다。

在外使臣과 緊密連絡圖코저
外交界優良人物을 歐米諸國에特派
後補者로吉田茂氏有力
外相의對重大時局對策

【電通東京電話】廣田外相은 明年의 軍縮會議를 압두고日本外交는 重大時局에 直面하게됨에 鑑하야 外務本省과在外使臣과의 連絡을 緊密히하기爲하야 各大公使에 對하야 國內事情을 知悉케하야 終始一貫한 外交를 展開케하고저 일즉부터外交界의優良人物을外相의特使로 歐米諸國에派遣하야在外使臣과의 連絡에當하기로決定하고 그候補者로前駐伊大使吉田茂氏를選擇하야 交涉을거듭하든바 吉田氏는十八日午前에 有外相交涉을正式으로受諾하엿다。同氏의行程은同氏에一任키로되엿는데 大體約半個年豫定으로 英國을비롯하야歐洲諸國을 一巡한後米國及南米諸國을 歷訪하고歸國할터로 十月初에出發할豫定이다 그리고吉田大使隨員으로 外務省의課長級一二名을選擇하야 同行식히기로되엿다

十八日定例閣議

【電通東京電話】十八日의定例閣議는午前十一時廿分부터首相官邸에서 開會되엿는데岡田首相以下全閣僚出席下에 먼저岡田首相으로부터 去十四日國民同盟代表들이 冷氣旱害로因하야被害가甚한 窮乏農村地方의對策에關하야 進言한바를報告하엿다

豫算通過緊急必要로
來議會는不解散?
政黨內閣出現當分無望으로
政友側도自重論優勢

【電通東京電話】政友會로부터 前後二回에亘하야 窮乏農村救濟 米穀對策樹立等으로臨時議會召集要求를 밧덧스나岡田首相은 그때마다이를婉曲히拒否하야 政府에臨時議會를召集할意思가업는것을 明白히하는同時에 임이明年度豫算編成에 着手하야 來議會에臨할準備를하고잇다 이에關하야最近政黨方面의 情勢는野黨的立場에잇는 政友會는臨時議會召集이一蹴되고 目間頭其他複雜한黨內事情等으로因하야反政府的空氣가濃厚하나政府로서는軍縮會議對策窮乏農村救濟의諸稱設은 一日도粗忽이할수업는問題임으로이런意味에서明年度豫算을如何한일이잇더라도 그實現을期치안하면 안될立場에잇슴으로 來議會를解放할은 될수잇는限回避할方針이다 一方政友會로서도現在의 黨內情勢로보아表面은極히强硬한것가티 보이나 黨의運命을賭하고 政府와싸워總選擧에依하야 假令싸움에 勝利한다하더라도그所期의政黨內閣出現은當分希望할수업고임은우며서政府에挑戰하야가장急한國防豫算農村救濟費의不成立을招來하는事態를惹起할은自己가墓地를파는것이라하야 黨內一部에自重論共鳴者가 만흔이때문에政友會는全然딜렘마에빠저잇슴으로來議會를 解散에誘하는輕擧는到底히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命令系統의 單純化가適當
西尾參謀長談

【新京十七日發聯合】在滿機構改革에關하야 現地意向을携帶하고渡東하엿든 西尾關東軍參謀長은 午後七時三十分新京에歸着하엿는데 車中往訪記者에게如左히말하엿다

今回의機構改革의特徵은從來關東廳長官의 管下에잇든權限을全權大使直屬의 行政事務局長權限下에 移管케되는것으로命令系統이 單純化되엿이다 滿洲國永久的繁榮의見地로보더라도 單純化된機構가適合하다 軍部가補助에專念할時機가速히到來키를希望하나그것은現

忠武遺跡 (八)
公遺讒我心悲
咄! 東邦史上恨事多
天龍丸中 安在鴻

丁酉正月二十一日에 元帥權慄은 閑山陣에와섯다 公더러일러曰「淸正이 未久에또올터이니 舟師는要時羅의密約을조처서 행여나機會를 노치지말라」이때朝廷은 한참元均의讒訴에귀가솔곳해서 淸正이를독에든자라잡듯할줄알든만이라公은비록要時羅에계속는줄알면서도 敵히마음대로反對하지못하엿다 權慄은回程한지겨우하로에 龍川에서고변이오되「 아正月념흘에 淸正이와서長門浦에다혓다고하니 朝廷에서는淸正이와닷지못한것을 허물하야諫官이란者들은 紙筆을맛잡아必要가업서 大論을 변방내어 公의縱敵한罪를彈劾하고 拿鞠하기를命케하엿다 公은壬辰以來五年동안百戰百勝의 常勝將軍으로 蒼黃한局面 업드러저가는 나라를 바로잡어 猛將勁兵을 敵업시잡엇거늘 豪諫이란者는 痛哭閑山月의 大捷를 몰른남아에 紙筆口舌의 勇으로써、이齊天의大英雄을 손쉽게잡엇스니 그는 위낙잡기에 날랜者어니와 그러나 그는 遺芳萬年으로萬人의 唾罵를 바동에 알맛는者이다 宣祖는 오히려 共然未然가 御史를보내엇드니 御史는安全한길로 閑山島를갓다와서 啓하는말이「淸正이 건너옴때 모래터에 걸린지 七日에 能히逐하지 못하엿거늘 李舜臣은 처잡지를 못하엿나이다」宣祖는드듸어 저윽도록怒하고公은南方의 萬里長城인 常勝將軍이면서 그凱旋의 대신으로拿囚의 몸이되어 千里를끌려왓다 만일 公이갑슬求하는일이엇다면 무엇때문에 이時局에서 일하엿스랴?◇

그때公은舟師를거늘이어 加德島에가서 바로大戰機構를차리든터인데 拿命을듯고 閑山島에돌아와 陣中에잇는바를 點考하야 元均에게넘기니 軍糧米가 九千九百十四石에 딴데잇는곡식은 치지아니하고 銃筒은 各배에쓰고 잇는것 外에 三百柄이 남어잇섯고 火藥은 四千斤이오 다른것도이만하엿다 公이잡혀올라갈때 一路의 民庶士女는 痛哭하며 울끌는데 均은所願이成就되어 後任統使로 三道水軍을 그麾下에 號令하는 顯職한地位에 올랏다 이사람의 統制使노리는 그리쉽지안하서 行令牌號年半에 七月十六日 閑山島海戰이 벌어지나 먼저 압서달어낫고 全羅右水使李億祺 忠淸水使崔湖以下將佐는 모두 戰死하고 片片히바서진 艦隊는 軍資機械가 거의남음이업는 慘狀으로되엿다 元均이 이때에 려말이잇섯겟거늘 그는압서달어나되빨리닷지못한지라 不幸히죽엇고 多幸히效忠伏義協力宣武의公臣으로 忠武公과 權慄·뒤를딸어 一等功臣原陵君의爵命을어덧다 嗚呼公이가시고 權慄元帥가갓고 元均도갓고 乾坤江山總是空을 한탄하게되오늘이니 내人世의恨事를 다몰아서 荒凉한北邙山 原陵君의遺魂을弔할이可할가? 原陵이魂이잇슬지라도 오히려뉘우칠이잇스리라!◇

丁酉보다압서 丙申해겨울에 小西行長이 巨濟島에잇서 자조窘辱을當하니 公을업새면마음대로될지라 그는要時羅를시켜反間을놀새 慶尙左兵使金應瑞가 固因하야 權慄에게通하되「行長이 淸正과틈이잇서 반드시죽이고저하니 淸正이未久에또올지라 李忠武를시키어잡게하면 朝鮮의恨을갑흐리라」고。行長이 謀計가 김지안커늘 要時羅의하는말에 金應瑞가깜박속고 權慄이또속고 朝廷도딸어속어 淸正의머리가未久에手中에들어올것을 넌지시손곱아기대렷든것이다 에익! 이것은丁酉의再亂 水師가무너지고 모다所全南도湖南一境까지도 謂豎風奔潰하는 板蕩의局을일운妄略이오公의陣이閑山島도부터古今島에물러오게된來歷이다

◇

丁酉七月十六日에 三道舟師가敗하매 公은白衣로 草溪에잇섯드니 元帥權慄은 公을晉州에急히보내어 散兵을收集케하엿다 八月三日에야 閑山島敗報가들어오매 朝野는震駭하엿고 金命元 李恒福은 李舜臣을再用할것을從容히일외여 公이다시統制使가되니 將士가듯고차차모이는지라 公은軍官아홉과兵여섯을거늘이어 晉州로부터달리어 鎭津길을건는데 濫하는士民은 길에빽빽公을바라보고 壯丁은 그妻子에게하직하는말이「우리대감이 오시니 너이들은 안죽는다 나는 먼저대감을 딸어갈터이니 너이는 천천히차저오라」고。公이 順天에 왓슬때에 精兵이六十餘人이오 寶城에왓슬때에는 一百二十名이엇섯다

「忠武대감!」는지금南州의士女들이 忠武公을불르는 말법이다 公은術이正憲에미첫고 卒한後 大匡輔國을 주엇스니 大監이 위낙 틀림업지마는 이「忠武대감」은드듸어神化한土俗的尊稱으로서 오히려意味잇는것이다 嗚呼公의恩德이 千秋萬衆에무저저서 各地方에血食하며 欽仰함을 밧거늘 當年에잇서 오히려幕僚의誣諫이란者의 讒誣를깨치지못하엿스니 이所謂犬이나 人이나? 아니다의歷史에 어찌그恨事가만흠이뇨?

聯盟은東洋과絕緣!
中國의理事國選擧落選과
中國諸新聞의論調

【電通南京十八日發】國際聯盟非常任理事國選擧에 中國이落選되엿다는公電은 十七日午後十一時郭泰祺氏로부터 外交部에到着되는直時로 廬山의蔣介石氏에게轉電하엿다 國民黨部機關紙中央日報를비롯하야 十八日朝의諸新聞은 모도大大的으로中國代表의聯盟에잇서서의狀況을報告하고 聯盟은드듸여東洋과絕緣하게되엿다 고斷言하엿다 이記事는마츰九月十八日黨部其他에서 滿洲事變記念日을開催하엿는데 參集하는者도적고 單純히黨部의宣傳이닐뿐으로 廣東에서日中兩國이反目嫉視하고歐米에信賴를두는것은危險한것이라하야 識會잇슬때마다 全國民에게理解되여歐米派、反日派의努力은 急激한凋落을示하고또 聯盟堆事力本願의 迷夢으로부터覺醒식혀 中國을救하는勤機가되는것이라하야 歡迎的態度를보이고잇다

今年의米作收穫高
五千五百萬石程度
昭和六年以上의凶作

【電通東京電話】十月上旬發表될農林省調查의米穀第一回豫想收穫高는 目下問題인米穀對策의方針을決定할基礎材料가되엿으로 例年과다른意味로자못注目되여잇다 即從來의米穀對策은 豐作對策으로서 恒常考究되고잇스며 今年도豐作豫想으로 前內閣以來根本對策樹立의必要가 唱導되고잇섯는데 北陸水害、東北凶作、九州의旱魃로大凶作이豫想됨으로 米穀事情이一變하려하며 따라서第一回豫想收穫高는 各方面에서注目되여잇스나 去般農林省으로부터發表된 害狀況에依하면 千葉縣以下十二縣에서의減收豫想數量은三百十七萬一千石으로되여잇다따라此에依하여도 最近五個年間에 平均收穫高는 六千二百萬石임으로今年收穫은 이미五千九百萬石이되엿다 더욱東北、北陸方面의凶作水害도三割程度의減收로豫想됨으로今年의米作은아마五千五百萬石程度가되리라고觀測되는바 昭和六年以上의凶作이豫想되다

寫眞 出律賓 브로엘州 제라페敎會에 在職中인라시모·아·세오판도牧師는 今次 平壤에서 開催된 長老敎五十周年大會에 參席하얏다가 歸途 本社를 來訪하얏다。左가 세오판도牧師 右가本社方社長

農林豫算查定着手
新規要求總額億千萬圓
一割程度나承認?

【電通東京電話】大藏省主計局에서는 十八日부터農林省所管의 明年度豫算要求查定에着手하엿는데 農林省의新規要求는 總額一億一千三百萬圓에達하야 그查定에는 相當한困難이豫想되다 即主計局으로서는 時局에鑑하야明年度豫算編成의 主眼은 國防과農村匡救에두고 이미 海軍、內務兩省豫算查定을 大體로終了하엿다 一九三五六年을 압두고國防豫算膨脹은勿論이오 內務、農林兩省의所謂時局匡救事業其他農村豫算도 모다豫想外의巨額要求가 殺到된 狀態임으로 財政의收支均衡을考慮하며 國防과農村匡救豫算의調和를期하려면 主計局으로도 如干한努力이 아닐것이다。그리고 主計局에 揭出된 農林豫算을보면 現下의窮乏된 農村實情으로보아 緊急한經費가相當이만흐나 一面例年과가티 不統一하게計數를羅列한傾向도顯著함으로 主計局의見解에依하면 참으로 困窮하다고 認定되는不況地方에對한匡救事業과 蠶絲對策에關하야 若干의計上을認定하는外는 一切新規要求는削除하야 總額의一割程度에查定할 意向을가지고잇서 查定結果는만하야 一千五百萬圓 假量으로될 듯하다

今井田總監 豫算其他協議

【東京電話聯合】今井田朝鮮 … 定이다

在의四國情勢가容許치안는다

米大使北平訪問

【電通東京電話】駐日米國大使그루氏는 十九日東京發北平에赴하는데對하야 十七日午後三時四十五分外務省에 廣田外相을訪問하고 인사를兼하야 臨時米穀其他諸問題에關한 意見을交換하고 同四時十分에辭去하엿다

米記者團一行
十八日秩父丸으로來日

【電通東京電話】貿閣宮同妃兩殿下께서秩父丸으로御歸遊하옵신 十八日、同船으로日本新聞協會招待의米國記者團一行 메렛트氏夫妻以下二十七名이着日하엿다 一行은 親히日滿兩國의實情을視察하고 日米親善의實을擧하기爲하야 約一個月半에亘하야 日本各地及朝鮮滿洲를 旅行할豫定이다

中國各主要都市의
九、一八記念大會

【電通上海十八日發】中國九、一八記念當日의 上海市街는 全部半旗를揭揚하고 午前十時부터 南市에서 記念大會를開催하고 左의激烈한抗日會로ㅡ간을決議하야 排日運動을크게煽動하엿다

一、全國同胞團結하라
二、國力을充實히하야國防을强固히하라
三、××帝國主義××를打倒하라
四、東北의失地를××하라
五、東北의自由軍을××하라
六、東北의難民을救하라
七、自衛運動을擴大하라

玆黨部代表로서陶百川、吳鐵城代理陳克等은

一、蹶起하야××에××하라
一、復×를爲하기爲하야 軍縮能費、經濟獨立、排×運動의徹底를期하라

라는日本攻擊演說을하야 民衆을煽動하엿다

【上海十八日發聯合】十八日은九、一八事件三周年에當함으로全國各地는 中央黨部作製에依한 一般紀念辨法에則하야 式典을擧行하엿다 上海에서는 市黨部主催下에 午前十時부터黨、市、軍、商、工、學各團體聯合으로 記念大會를開催하고 全市는半旗를 揭揚코 娛樂物은全休하야 全市民은 殉死同胞를爲하야 五分間의默禱를 올리고 市中은 極히 平穩하엿다

【南京十八日發聯合】九、一八國恥紀念大會는 十八日午前九時부터 首都各工界代表參集下에 大戲院에서 擧行되엿다 全市는半旗를 揭揚하고 一切娛樂宴會는停止하고 各新聞도悲痛한論說을揭載하엿다 一般의空氣는 極히平穩하다

【電通北平十八日發】北平에 잇서서 九月十八日 滿洲事變記念日은 極히 平穩하야 示威運動을비롯하야 其他모든集會는 官憲에게 嚴禁되여 各機關에서는 午前十一時에二十五分間의默禱를行하엿을뿐이다

事變戰歿者慰靈祭
景福宮에서盛大執行

滿洲事變勃發三週年을 記念하는京城府、商工會議所、赤十字社、在鄕軍人會、國防義會、靑年團、愛國婦人會、警察協會及軍人後援會共同主催 事變戰歿者慰靈祭는 十八日午後四時부터 總督府裏景福宮廣場에서盛大히執行되엿다

奉天의三周年紀念祭

【電通奉天十八日發】滿洲事變三周年記念日에 奉天에서는 午前九時부터 忠靈塔에서滿洲事變戰歿將兵慰靈祭가 盛大히擧行되고 午後二時부터軍民共同의防空爆擊飛行演習이 飛行場에서擧行되엿다

夕刊後의市況 (十八日)

大阪 短期 氣配
新 八四三〇 (不變)
新近 一二二二〇 (二〇四)
東日 一一七〇〇 (一〇四)

橫濱 生絲 後引
當限 四五七〇〇
先限 四六七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八九一〇
先限 八四三〇

▲訂正=夕刊數字欄「海外經濟」倫敦金塊七磅〇志一片二分一이란것은 七磅〇志五片二分一의誤植。

알라스카에大火
損害百萬弗

【노ㅡ므알라스카 十七日發聯合】알라스카東端에잇는 노ㅡ므市는 十七日大火로 거이全滅되엿다 損害는 百萬弗에達할모양이다

【電通華盛頓十七日發】알라스카노ㅡ므市의商業地域으로부터 十七日午後三時十分에이르러 發火되여 鎭火되엿는데市內總面積의三分之二에亘한 地帶를全燒하고 災民은 一千二百名에達한다

內河航行權을가진
外國船紛議問題
中國側의讓步로解消

【電通南京十七日發】國民政府交通部에서는 今春當地에서開催된 航政會議決議에基하야 全國航政局에命하야 外國籍의船舶이라도 中國側의船舶檢查를要한다고하야 內河航行權을가진列國間에紛議를거듭하고잇든바 最近英國빠라필드·스와이야汽船會社의 所屬汽船出港停止問題로부터 英國의嚴重한 抗議를바더形勢가不利케된까닭에 十七日交通部에서는 全國各航政局에對하야「外國船으로 船舶檢查證을有하者는 當分이를有效로認定하야 檢查치안는다」는訓令을發하야 外國船의紛爭問題는이로써解消되엿다

藤沼警視總監
近親者에辭意表明

【東京電話聯合】最近內務省의交涉關係로不美한風說을傳하고잇든 藤沼警視總監은그進退가注目되고잇섯는데十八日近親者에게 自己의進退에對하야充分考慮中으로事態가解決되면進退로決한다고辭意를明白히하엿다

大連署長以下
辭表再提出決定

【電通大連十八日發】大連警察署長以下警部補二十餘名은今般進退問題에關하야協議한結果 十八日多數의見解下에 辭表를再提出하기로決定하엿다

秋季新學期開始

早稻田大學講義

早稻田大學은大學敎育을大學內에獨占치안코、一般社會大衆에開放하야서、我國文化進步에貢獻함을一使命으로하고、開講以來五十年、年年歲歲改善에改善을加하야、只今은學界의最高峯에서서、또旣히各方面에多數의名士를보냇다

法律講義
本講義는早稻田大學講義의細目에依하야全學科를按配하고、講師에는官私大學敎授、大審院判事、第一流의辯護士等을網羅하야、難解한法律을明快히講述하고、實社會에서斯學의活用의便宜를주는同時에各種高等受驗準備에最良最新의參考書다。
每月一回發行●一冊菊判約四百頁
學費月一圓二十錢●一ケ年半修了

政治經濟講義
옴겨가는時代思潮에出帆코자、獨學에依하야大學程度의政治學、經濟學을修學하려하는者는本講義를읽으라。早稻田大學政治經濟學部의全課目에더 隨時一般財界、政治界諸問題의特別講話를連載한本講義는、正히最善의政治經濟讀本인同時에高等試驗受驗者의最良參考書。
每月一回發行●一冊菊判約四百頁
學費月一圓二十錢●一ケ年半修了

文學講義
本講義는早稻田大學文學部의學課要目을敷衍하고、倫理、哲學、社會學、藝術學等의文科的基礎學課를비롯하야서、我國及支那古典의鑑賞、批判的硏究와外國文學의歷史的硏究와를加한渾然一大綜合文科講義。文學愛好家에도、文檢受驗者에도、必讀絶好의參考書다。

內容見本進呈
希望하시는이는講義를明記하야申込하시면내로送呈함

中學講義 學費月一圓●二ケ年了
商業講義 學費月一圓●一ケ年半了
女學講義 學費月一圓●一ケ年半了
建築講義 學費月一圓卅錢●一ケ年半了
電氣工學講義 學費月一圓卅錢●一ケ年半了
電氣工學豫備講義 學費月一圓●一ケ年了

東京早稻田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二三三●電話牛込三四五番

白日下에드러난 伏魔殿의暗黑體

京城府廳不祥事件 報告書【一】

◇報告書◇

昭和九年七月十九日부터九月七日까지 二十五日間에互하야府의事務에關한書類及計算書等檢閱하고事務의 管理及出納의檢査를 執行한바 其狀況을左記대로報告함

昭和九年九月十日

京城府會常任委員長 大村 白藏

京城府會議長 伊達四雄殿

報告書內容

第一 總論

第二 府吏員非行事件

第三 徵收事務에關한狀況

第四 物品의購入及出納事務에關한狀況

第五 府吏員身元保證及事務引繼、其他의狀況

第六 結論

× ×

第一總論

最近京城府에서는 不詳事件이頻頻히 摘發되야府民으로하야금許多한疑惑을갓게하고 나아가서는 府의威信을失墜식혀府政運用上에미치는 影響이不尠하야實로寒心不堪하는바잇서此의 眞相을探究하야 府弊의因하야온 根源을糾明하야써府政의 圓滿한進展을期함은實로今日의急務라고信한다 常任委員會는 主로右不詳事를中心으로하야 此에 關聯되는府의事務에關하야 書類와計算書等을檢閱하야事務의管理及出納을 檢査하는同時에 水源池、水道分室、病院衛生分室等에對하야 檢閱檢査를 하얏든바그結果는 想像以上으로紊亂을 極하야許多한缺陷이잇슴을 發見한은我京城府를爲하야眞實로遺憾不堪하는바이다 以下차례를따라그結果를報告코자한다

◇第二 府吏員非行事件

府吏員의非行事件은如左함

一、朴炳熙事件

二、石井解介事件

三、藤田末藏事件

四、吉田一夫、錦出隆三郞、大野一幸、志賀隆雄、藤城巖各事件

五、武智雅祐、谷本儀事件以上으로서 藤田並藤城은不拘束 其他全部身體를拘束되야目下 司直의손에서各各審理中에屬하얏(內石井만은이미判決言渡)슴으로 따라서 關係簿冊六十五冊을檢事局에押收當한까닭에 充分한檢査는 할수업섯스나 當局의說明과殘餘帳簿에依하야 大體事案의眞相을調査하다

一、朴炳熙事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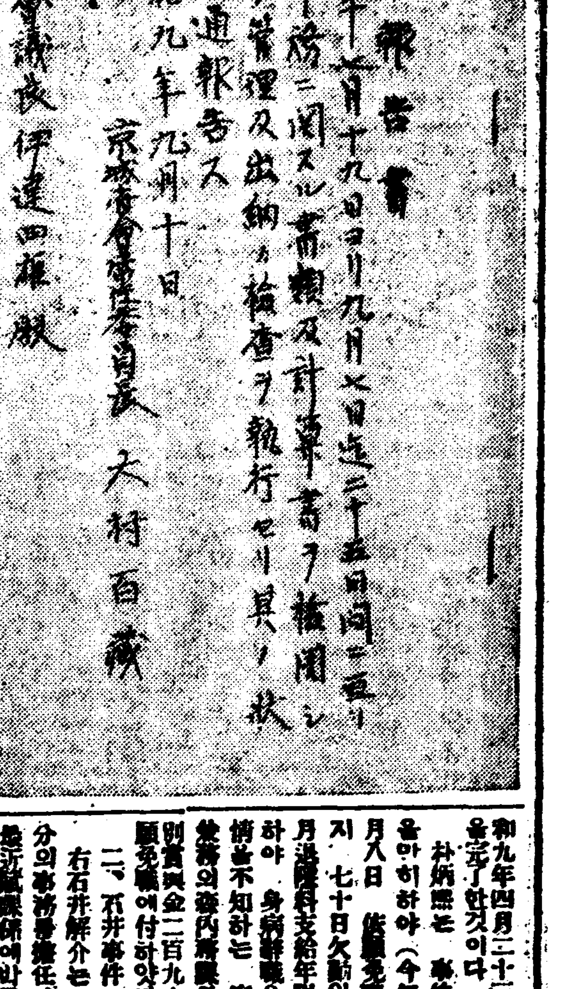
朴炳熙는稅務課徵收係에勤務하야 歲入整理簿의記帳을하는府書記로서 昭和八年六月頃徵收係에서는 第一部特別經濟에屬하는新町의 貸地料滯納整理의方法으로 每日金五圓乃至八圓을 日收方法에依하야 收合식혀相當한 金額에達할時는滯納金으로拂込하기로 滯納者와約束하야 府屬小野坂을식혀此의徵收에當케하든바當時朴은小野에게對하야係長의命에依하야自己가右日收金의整理를하기로되얏다속이고하야 徵收金은自己에게交付하라고하야 小野는係長의指示를밧지안코 昭和八年六月十九日부터 同十一月四日에이르는 徵收金全部朴炳熙에게交付한바 朴은金三百八十圓也를橫領消費함은 十一月五日、當時의擔任者이든 中澤屬及中島徵收係長에게發見되야 嚴重調査한結果昭和六年度地稅及同付加稅의過誤納金、昭和七、八年度戶別稅昭和八年度營業稅付加稅昭和五、六年度貸家料及前記第一部特別經濟에屬하는貸地料合計金千七百十八圓五十三錢을橫領消費한事實을發見한것이다 右中에서稅金은納入委託한것을그대로着服하고貸家料金千圓也中金五百圓也는 窓口에서此를受領하고 金五百圓은直接滯納者田島方에出張徵收한것이다 當時徵收係長은 直時此를稅務課長에게報告한모양이나 當時稅務課長은 此를府尹에게報告치안코 隱密한속에서 補塡策을講究식혀 數回에논아서昭和九年四月二十三日全部의補塡을完了한것이다

朴炳熙는 事件發覺後 欠勤을아니하야(今年一月부터 六月八日 依願免職에 至하기까지 七十日欠勤) 昭和九年六月退職賞與支給年限에達하기를待하야 身病辭職을申告하야 事情을不知하는 府尹及稅務課長은 事務의委內務課長은 正規의特別賞與金二百九十圓을주어 依願免職에付하얏다 (下略)

二、石井事件

右石井解介는 徵收係滯納處分의事務를擔任하는書記補로서 最近賦課係에바구어 勤務하게된者인데 所聞에依하야 調査한結果 同人이滯納處分係在勤當時의 滯納處分費, 戶別稅營業稅付加稅二十五人分 金五百七十三圓十九錢을徵收하야 消費한事實을 發見하고 當하자두어번에논아서消費金을辨償한것이다

石井이가 徵收係에在勤當時에公金消費事實이判明되지아니하얏슴은 滯納카—드를秘密히감초아둔것과 滯納處分을할에當하야 金員을受領하는때名刺又는判收帳에記入하야 何等府의正規用紙를不用한까닭이라한다 (下略)



報告書

昭和九年七月十九日ヨリ九月七日迄二十五日間ニ亘リ府ノ事務ニ關スル書類及計算書ヲ檢閱シ事務ノ管理及出納ノ檢査ヲ執行セリ其ノ狀況左ノ通報告ス

昭和九年九月十日

京城府會常任委員長 大村百藏

京城府會議長伊達四雄殿

群山印刷工中心 某種結社體發覺

新聞社職工等被檢

【群山】 지난오일부터군산서(群山署)고등계에서는무슨사건의단서를 어덧음인지 돌연긴장하야가지고 군산일보사(群山日報社)인쇄직공 최상래(崔相泰)정정산(鄭正山)림병곡(林秉恭)등다수의직공을 검속 하는동시에서적 서류등을압수하야 극비밀리에 이래여몽취조를 하는중이라는바 사건의내용은 당국에서절대비밀에 부치므로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군산일보사인쇄직공을 중심으로한 모종의조직이잇서 그간 암암리에 엇더한운동을하든것이발각되엇다고한다

僚友의美學

전긔와가티 지금의 공긔로 보아서는 적지아니한 시일이 걸릴모양임으로 군산일보사에서는 부득이검속된식공들을 해고(解雇)식히고 보결을하지아니할수업는 형편에서계되야 그들가족들의 생도가막연하게되엿섯는바 이에 분긔한 현재동사직공일동은 작업시간을 연장하야가지고 결원된동료의 농품을보충하야 해고를면하게하고 그전월급의 삭분지일을 가족에게 지불하야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게되얏다는바 이소식을들은 일반은 그들의미거에 칭찬이자자하다고 한다

注文品못대주고 橫領罪로被訴

시내례지동 구십이번지 홍순민(洪淳敏)(四五)은소화오년철공업소(鐵工業所)를 할때에 시내효제동십칠번지 김복연(金福淵)(三?)에게 전조선에 관개양수기(灌漑揚水機)일수판매를허락할터이라고 그선금으로 일천삼백원을바든뒤에도 양수기를 제조하야주지안타가 김복연이가 졸는바람에 몃백원에치단 양수기를주엇을뿐으로 우금사오년이되여도 남어지칠백원 어치를 제조하야 주지안엇다 뿐만아니라현금으로도반환하지안음으로 김복연은 홍순민을 상대로십칠일에횡령죄로 고소를 동대문서에제기하얏다

稀有의大窃盜 格鬪끄테逮捕

【仁川】 지난십오일오후십일 시경 시내 만석정(萬石町)흑교(黑橋)근방에서삼명의 범인일명을 체포코자 망을 넘으며 다리에서뛰여나리는등 일대활극을 연출한끄테약 한시간만에 범인을 체포하얏다는데 동범인은 시내신화수리(新花水里)일백사십사번지조정환(曹正煥)(三)으로자백한바에 의하면 작년칠월에 서대문형무소에서출감한후 한동리에 사는 신성일(辛成一)의집에침입하야 백금시계와 현금까지 합십백여원을 비롯하야 피해액이십여건 총계 약이천여원에 달하리라는데 그외에도 여죄가만흔듯하야 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科學普及會理事會

과학지식보급회(科學知識普及會)에서는십칠일오후 네시부터 시내공평동(公平洞) 동회회관안에서 제이회리사회(理事會)를열고 여러가지로 결의가잇섯다고한다

龜浦서第二次로 衣類二千點配給

罹災民에게一一히

【龜浦】 귀포는 재해의 가장 심한자리로서 세민층이 재후 근근히 연명을하여가면서 복구에허덕이는 판인데 본사의구호품이 도도착하야 의류등 이천칠십구점을 지난십륙일에 일인당일매식 리재가옥호수대로 무루히배급하얏다 재민은 본사의재 이차구호에감격하얏다

富川多朱面 振興會義學

경긔도부천군 다주면구월동(富川郡多朱面九月洞) 농촌진흥회에서는 삼남수해동포의 비절한 보도를 신문지상으로보고 본사부천지국에 현금십일원 십일전을 다주면소 서긔홍린표(洪麟杓)씨를통하야 재지에서울고잇는동포에게로 보내여달나고 긔탁하얏다

往十里公普生 十一圓을募集

本社로寄托하여

【漢芝里】 요스음에쌀쌀한바람은 풍찬노숙으로 거리에서떨고잇는 삼남수재동포에게터 한층공포를 주고잇는 이때시외왕십리공립보통학교(往十里公普校)에서 오는이십륙일이 동교추긔운동회로대단히 밧분때임에도 불고하고 수해동포를위하야 전교생에게서 푼푼이 거더모은 십일원오십이전을본사한지면지국에의탁하여엇다 (사진은 왕십리공보생일동)

三南水害義捐金品

▲本社接受=十八日午後五時까지整理分▼

現金累計 三萬三千五百七十七圓四十錢

物品累計 七萬八千二百六十一點

一金五圓四十三錢 鳳山郡 萬泉公立普通學校生徒一同
一金五圓 寬勳洞 金 氏
一金四圓四十錢 安養公立普通學校生徒一同
一金三圓四十六錢 載寧邑上里耶蘇教會一同
一金二圓、開豊郡光德面中連里 崔承祿
一金一圓 洪川邑基督少年少女節制會一同

本社沙里院支局經由分(五回)

一金三十八圓九十一錢
內譯
一圓五十七錢 沙里院幼稚園兒童一同
二圓九十五錢 沙里院斷酒同盟會
十二圓六十五錢 沙里院德盛學校兒童一同
二十一圓七十四錢 沙里院監理教宗教部엡웟靑年會主催水災救濟聖靑大會總收入一百八十圓八十錢內에서費用一百十五圓五十七錢을除하고殘額三支局配分

本社醴泉支局經由分

大麥三石五斗二升七合 醴泉大昌學院職員生徒一同 四〇七人醵出分

本社水原支局經由分(第三回)

一金九圓二錢 衣類三十六點
內譯
三圓 水原郡日荊面高等里振興會青年部員一同
一圓三十二錢 水原郡日荊面高等里振興會夜學生一同
四圓七十錢 富國園發送部員一同
三十錢 李完駿 十錢 奉柱源
二十五錢 李東洙 三十錢 崔壽山
十錢 朴應柱 三十錢 洪千裕
十錢 申正玉 十錢 崔應煥
三十錢 李龜山 二十錢 崔連奉
二十錢 金熙龍 十錢 李敬西
五錢 崔鉉泰 五十錢 無名氏
五錢 林仁順 五錢 金仁會
二十錢 金慶會 衣類七點 水原郡日荊面高等里夜學生
二十錢 金順成 三點 林仁順
五十錢 野中八郞 一點 金玉順
五錢 金聖龍 一點 鄭順根
十錢 李南駿 七點 李貞順
二十錢 鄭壽連 三點 金正山
五錢 車禔滿 二點 沈姬求
十錢 朴濟祥 二點 龍鳳姬
三十錢 崔錫奉
五十錢 李文葉 五十錢 趙雲淵
一圓 朴泰和 三十錢 黃一燦
二十錢 趙淸淵 五十錢 張鍾麟
一圓 全明漢 三十錢 李圭昌
三十錢 林判甲 五十錢 金光淵
一圓 楊世援 五十錢 徐光洙
二十錢 金洙浩 二十錢 金守鉉
五十錢 金咸萬 一圓 金濟述
二圓 劉永燁 三十錢 崔成甫
五十錢 趙鳳淵 一圓 申明澈

滿洲國遼陽初音町朝鮮人民會

一金二十五圓十九錢
內譯
五圓 金興烈
五圓 金天一
一圓 朴炳德
一圓 安仁植
一圓 金龍淑

朝鮮社會事業協會取扱分(九月十七日正午까지)

現金小計 九十四圓四十一錢
物品小計 四百四十三點
日計 一、六六三圓〇六錢
累計 一六七、四一七圓三五錢

安定根入境說로 黃海警察大奔走

【海州】 지난십륙일경안중근(安重根)의실제로서중국방면에서 민족주의운동에 종사하든안정근(安定根)(五一)이가그곳모사상단체로부터 밀령을바다 가지고 이달초순경에 산동성(山東省)을출발하야중국인밀항선(密航船)으로인천(仁川)에 상륙해가지고 고향인 황해도신천(信川)으로잠입하엿다는 정보를접한 황해도경찰부 고등과(高等課)에서는 아연실색하야관래각서에 일제히수배를하는 동시에 특히소할신천서(信川署)를지휘하야 신천에거주하는 권긔안정근의친척의집을 엄밀히 정색을하는등 대활동중이엇섯는데 조사에따라 전긔안(安)이 조선에 건너왓다는것은 근거업는 소문으로서 방금은모도 것지못할중병으로 산동성위해위(山東威海衛)자택에서 알코잇는것이 판명되어 경찰의활동은 헛수고로도라갓다고한다

妖術醫學博士 岸一太氏取調

【東京電話】 동경시삽곡구대화전(東京市澁谷區大和田)사백구십오번지 명도회(明道會)의맹주 외과의학박사 안일태(岸一太)(六七)씨는 십칠일아침 자택에서 경시청에동행되어 수사제이과에서 취조를 밧는중인데 동씨는 일직이조선사람을 식혀 예언을하고 신자들에게서 만흔돈을 긁거드린사실로 경시청의 소환을바든일이 잇섯든바 최근에도 조선으로부터 최꾼진(崔□□)(□□)이라는사람을 불러다가 전번과가튼짓을한것이 발각된것인데 금번에는 륙거될모양이라한다

갈곳업는 네식구의애소

경찰에와서하소연

서울로 버리를하려 남부녀대에 어린자식들을 데리고와다가 남편은병사하고 자긔는 교통사고에서 다리를상하여 가지도오지도못하고 죽게되자 경찰서에을며호소한 가련한네식구 일가족이잇다 강원도양구 수입면(楊口郡水入面)에살든 정재옥(鄭在玉)(四一)은 금번정월 그남편 리영호(李英浩)와한가지로 열두살난 두딸을데리고 버리를차저 경성으로올나와 시내종로삼정목(鍾路三丁目)=番地未詳)에서노동을하며 살어왓는데 금년칠월 그남편이우연히병사하고 다시 언친데덥쳐 멧칠전에 자긔는 종로오정목부근에서 자전거에치어 다리를상하엿다 이러케되니 그나마해먹든벌내품 들비수기가튼 버리도 못하고 세아이와함께 굶어죽게되자 길로울며도라다니다가 십칠일밤에는 할수업시 본정서에 애달푼신세를 하소하엿다 동서에서는 아직 어떠케할방침이업서 그대로보호중이다

昨日까지社協에 二萬九千圓傳達

本社에寄托된義捐金處分 前後三回로分하야

만천하의 동정이 조선일보를통하야 삼남수해지의 리재동포에게로총집중이되어 그동안 본사에 모힌물품이 칠만팔천이백륙십일점 현금이삼만삼천오백칠십칠원 사십전에 달하엿거니와 그 물품들은 그동안 본사에서 직접으로 리재지에 파견한 구호반혹은 본사 지분국에 보내어 배급을하엿고 현금은 사회사업협회에 보내는데 본사에서직접재지로 삼천원을보낸것외에본사에서는금십팔일로일만원을다시 보내어구휼십일일과팔월구일에보낸일만사백일원사십사전과칠월이십오일에보낸 팔천팔백오원사십오전까지 합하야 이만팔천팔백 륙원 팔십구전을보내엇다

第一回全朝鮮 아마츄어拳鬪選手權大會

【全東洋選手權大會派遣選手選拔】

▼期日 九月二十六、七日夜

【申請期日】 來二十四日까지 苑洞拳聯事務所로

【選手權種目】 풀라이、반탐、페더ー、라이트、웰터、미들、라이트헤비、헤비、八種目

場所 京城運動場

主催 朝鮮體育會 全朝鮮아마츄어拳鬪聯盟

後援 朝鮮日報社

産業欄

廢物利用의新副業 食用茸의人工栽培

●맛잇는버섯을누구나맨드는

●有望堅實한生產的新事業

◆「食用茸의栽培는 極히有益한副業이다」란것은엇더한분이나밧서아신바이다。從來만흔분이從事하야서누구나다相當한成績을엇고잇다。그러나셜션히도從來의舊式栽培法으로는버섯이發生하기는短期의季節에限하고 또着手하야서버섯發生까지는數年을要하고、그우에到底 場所가必要함으로都會에서는栽培가困難함으로누구나손쉽게맨들지못한것이무엇보다缺點이다。

◆그런바—글세말이다。世上은正히科學時代다 只今까지全然、버섯栽培等을아지못하신분도自由롭게簡單히安樂하게栽培가되고、더구나材料는廢物갓튼통밥、과空瓶等을利用하야정주、시렁의한귀業에도短時間에쑥쑥나게할수가잇다。놀날만큼進步한科學的新栽培法이發明되어잇다。

◆처음은半信半疑로新栽培를試驗한實驗者도부터「버섯이季節外에 우목하게보기조케發生한다」라든가「觀賞用으로高價販賣한다」든가「食用으로서歡迎바다잘팔린다」든가或은「資本이殆히 無用함으로、더구나有望、堅實한副業이라」든가하는感謝歡喜의報告가만히온다。

◆論보다證據—食用茸의眞實한產業的價値를實際로體驗한분들의報告의實況으로보든지如何히最新科學과近代文化의精神을取入한趣味와實益을兼한生產的新事業인것이充分히알려질것다고생각한다。參考로몃가지左에實驗者의報告를揭載하오니 아무조록熟讀하시라 (編者)

食用茸의栽培는趣味와實益 豊富有望한副業이라미듬

(三重縣) 機部一雄

不況 時代임으로『무엇이資本이안드는 理想的副業은업는가』生覺하고잇는時에、偶然히도紙上에서 廢物의空瓶과톱밥을利用하야서 맛잇는食用茸가되다는記事를읽엇소。이것이면資本도들지안코、또家庭에서安樂하게季節外맛잇는버섯이無數히됨으로、副業으로는勿論有望하리라고 빨리栽培를始作하엿소。그런바近所의 사람들은『甁에서버섯이나는가』하고 一笑에附치고 탄치안흔분도잇섯소。

그러 나 나는『空中에飛行機가날고、ラヂオ로말하는現代에버섯의人工栽培쯤은조곰도異常할것업다、只今훌륭히 栽培하야 놀내주겟다고 不斷한信念下에 多大한希望을걸고 一個月쯤 經過하얏더니、果然쑥쑥멧무덕이가자미나게發生하야 그가날마다 發育하야서實로보기조케버섯이되얏소。

나는 깁분남어지 버섯을自慢하고 親戚과몬저 웃든분들에게 分配하여주엇더니、다『엣』이라고 놀내여珍貴하게 녀이고、그훌융한맛에 稱讚이자자하엿소。이것으로 더욱더욱 깁부고、그로부터漸次栽培의規模를擴張하야、드듸여多數의茸料理店、旅館、市場等에出品까지하게擴張하게되얏소。

原價 는一回째는五錢、二回째는三錢으로넘기엿소、그에發生한茸는百匁七八十錢부터큰것은 百匁一圓으로販賣하엿소恒常優良品의栽培에 努力하고잇섯슴으로、甚히 評判이 조코、每日注文에쫏기여잇슴으로나로서는販賣上조금도不安이업고이우업는感謝를하고잇소。

여하튼廢物로서 훌륭한食料品이맨들어지는 이新事業은趣味로서도 副業으로서도專業으로서도實로好適한일이라고確信하오。

더욱食用茸栽培希望한분은愛知縣矢作町三九平松食茸栽培所葉書로申込하면 食用茸의說明書無代送呈

쑥쑥發生한메나茸

日本一의人工茸村으로서成功

新興副業으로써堅實한發展

(長野縣) 上條義基

昨今 갓튼 不景氣時代에는 幾分이라도 家計를潤澤케하고 生活을깁부게할意味에서適當한 副業을選定할것은 極히肝要하오、그러나 家庭副業은 어데까지손쉽게되고、資本이안걸인것이 안이면안되오、食用茸의人工栽培가近年急速度로發展해온것은僅少한場所와無資本同樣의費用으로都會、村의分別업시누구나極히簡單하게됨으로、産業振興上으로보드래도自力更生의見地로진실노 김분일이라生覺하오。

나는 愛知縣矢作町 三九平松食茸栽培所의優良菌種을가지고食茸栽培에着手하야 以來발서數年間을經過하고、現在우리村은日本一의人工茸村이라고까지發展을하야、各戶에서栽培의茸는食用茸出荷組合으로優良品을集合하야그를適當히 荷造하야서各都市에大大的으로出荷하고新興副業으로서가장堅實한發展을나타내고잇소。勿論販路도年年擴大하고잇소。

그리 하야全體로서는 年年數瓶의栽培를하고잇스나、여하間材料는廢物同樣의廉價物임으로이點은副業으로非常히든든한맛이잇소。即一瓶當原價는但只四五錢쯤、그에生産되는茸의取引價格은百匁平均五十錢쯤、時季와品質로는그보다高價의一圓쯤으로販賣함으로、이것만큼簡單하고堅實한副業은他에업소。

現在 이버섯의 大部分은一流의料理店과旅館等에서 競爭的으로 消費하고잇스나、맛잇고榮養價가豊富함으로一般家庭食膳에까지供給되도록普及되얏슴으로消費는莫大하야前途洋洋하야그發展은자못測量키어렵소

食用茸의說明書無代進呈

左記에葉書로申込하면有益한食茸의寫眞入說明書를無代進呈함。섬으고안심으기는別로하고說明書만은、곡보와둘가치가잇소。生覺난것이吉日이라、곡葉書로申込하시압。

愛知縣矢作町三九

平松食茸栽培所 (電話一三五六番)

滿洲國稅關에서 新義州陳情一蹴
安東縣에密輸防止令은適切하다
織物執照布令全文

【新義州】 긔보만주국재정부대신으로부터안동현내에 잇는 직물은 엇던것을물론하고 세관의증표가 업스면 모다밀수품으로인정한다는 포령(布令)이나리어 선의주포목상계에는 큰충동을이르켜 재정부대신을 위시하야 각요로당국의 항의진정을 제출중인데 이에대하야 만주국안동현세관에서는

「밀수의방지는 원래국법에의한것으로 그실시와 지역방법등은 세관장이 임의로처단할수잇는것이다 지금 안동현에만 이방법을실시함은 안동현에는 이것이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한때문이다」

라하매 선의주포목상조합과 안동현상인의 진정은 마이동풍격으로 들은척도 하지안는다는바 금월이십일부터 실시하는 그법령의내용과 취체방법등은 다음과갓다고한다

第一條 安東으로부터移出하는織物類에對하야는 稅關發給의織物運輸執照를添付할事

前項織物類로서織物運輸執照의添付가업는것은特別한證明이업는限此를 密輸入品으로看做함

第二條 織物運輸執照의下付를受하려는者는 輸入品에對하야는當該放行單 或은此에代할만한書類, 土産品에對하야는 土産品인것을證할만한書類를具하야 安東稅關에申請할事 織物執照는附錄樣式에依함

第三條 本令에서織物類라稱함은 綿, 絹, 人絹又는毛織物과그交織物을謂함

本令은康德元年九月二十日로부터此를施行함

一, 取締範圍

本取締는 安東縣內로부터移出하는織物에對하야만實施함

二, 取締方法

(가) 鐵路에依한 移出織物取締

安東縣內生産品, 輸移入織物을 安東, 沙河鎭, 蛤蟆塘及五龍背各驛으로부터 移出하려는境遇에는 左의手續을取치안흐면안된다

國內産品에對하야는製造者가作成한製造證明書, 輸入品에對하야는 輸入의際稅關에서發給한放行單을 稅關에提出하고 提示할事

滿洲附屬地內生産品에對하야는日本領事館署發給의 原産地證明書를 托送驛에提出할事 下略

三, 過渡的措置

(가) 本取締實施의際安東에現存한織物(스톡)에對하야는貨主는 實施의日로부터二十日以內에 附屬地內에 所在한것에對하야는 日本領事署, 其他의것에對하야는 稅關에現在高報告를 하지안흐면안된다

(나) 前號現在高報告를記載한物品은 一旦, 正當品으로看做하고 이를安東縣으로부터移出하려는때는 그때마다貨主의申請에基하야 稅關에서運輸執照를發給함

負擔金未納으로 鋪裝工事遲延
永登浦邑當局의頭痛

【永登浦】 경성, 인천간의십오간국진선도로중 영등포시가의중주지에 관련된 부분약칠백간의포장문제에 대하야서는 읍당국의노력과 도당국의 후의로지원주민의 부담이 경감케되여경인도로 포장긔성회를 조직하고 신선도로의 몽리정도를 참작하야 총부담금칠천원을 팔월말일까지 거출하야 도당국에납부하고 구월초순부터 공사를착수하야 년내에완성할예정으로 대활동을 계속한바 그후부담금납입성적이 량호치못하야 겨우사천원의 수입이잇슬뿐이고 아직삼천원의 미수가잇서서 공사실시긔가 지나도록 진행할수가업다하야 읍당국은 관민간에끼여 대두통거리라고한다

谷山의巨役 文城橋竣工式

【谷山】 곡산의한복판을뚫코 나려가는 대동강상류인 문성강은 북으로함남원산 남으로신막 남천을통하는 사이에 교통상으로보와서 만흔지장을주고 잇든바팔만여원경비와 일개년 시일을요하고 맛친내 지난십오일에 준공식을거행하얏는데매우성황을 이루웟다하며 준공조도식에는 곡산군청계면문양리(淸溪面文陽里)홍동회장 리병헌(李秉憲)씨대의 삼부부를선두로건네엿는데 당일그근방에는 인산인해를이루엇다한다

取得稅額으로본 平壤府民土地熱
五個月間六百餘圓價值賣買
年復年增加의勢

【平壤】 평양부내에는토지매매로일화 백만금의 졸부가된사람도적지안치만 부동산 취득세(不動産取得稅)에서본평양부내의토지매매의 사황을 조사한바에의하면 토지를매매 한다면가격의 천분의십을 도세금(道稅金)으로 납입하기로 되여잇는바 그세금액은 소화륙년에는 일만구천이백 륙십오원 소화칠년에는이만륙천원 팔년에는 사만구백삼십원으로 점차증가 하여오든바 금년사월부터 팔월까지의오개월간에는 실로 삼만팔천륙백원의 거액에달하여 만일이대로나아간다면 구년도에는 구만원이상에 달할모양이다 그런데세금이 가격의천분의 십이므로금년오개월간의토지매매가격은삼백팔십륙만여원에달한다하나보통신고는 실제매매 가격의삼분의이정도밧게안되는터이어서진정한 매매가격은 륙백만원을초과하리라한다

赤壁江海岸 改修工事起工
總工費三萬圓

【高城】 소화칠년십일월동해북부선렬차(東海北部線列車)가고성읍까지 개통을보게 되엿때 라적벽강지류(赤壁江支流)인고성후천을 횡단한관계로 량수가읍내와 부근일대에 만흔홍수의피해를보게된이후 이래 피해지주민들은 후천개홍을 총독부에하요로당국에 루차진정 하엿스나도저히 개홍은불능이라 하여적벽강호안 공사를 하기로되여강원도에서 입찰하여 목하공사에착수중인바 현상보다 약의미돌을놉힌다하는바 개수 구역은고성읍을 긔점으로봉수리(峯燧里)접해(接海)부근까지 약일리가량이라한다

大同江岸에 溺死體一個

【平壤】 의사시체두개가대동강에 표착되엿다

십오일 오후두시경 부내선교리(船橋里)대동강안에의사체가표착된것을 계관이 검시한결과대동군보림면문천리 (大同郡普林面閑天里) 선부김지수 (金志洙)(三二)로 주머니속에는『세상이귀치안어 자살합니다』라는유서한장을가지고잇섯다한다

또한십오일 오전륙시경 사동(寺洞)대동강안에도 서북종의의사체가 표착되엿스므로 검시한결과 년령 사십칠, 팔세되여보히는선원을 컨연 알수업는시체이엇다

怪漢, 잡어보니 說敎强盜共犯
大邱署에서嚴調中

【大邱】 지난십사일미명에대구서원의 활동으로 신정(新町)방면에서 괴한한명을 체포하얏는데 취조한결과 그는경남창원군동면화산리(昌原郡東面花山里) 전과삼범 지룡수(池龍守)(二五)로 지난오월이십칠일 대구부횡정(橫町) 박병익(朴炳益)씨의집에들어가 금품을 강탈한설교강도 민병옥(閔炳玉)의 공범인것이 판명되여 방금취조중이라한다

金相鳳君의 高文試驗合格
法文科在學中

【釜山】 구주제대법문과제삼학년생 김상봉(九州帝大法文科第三學年金相鳳)(二五)군은 금번 고등문관필긔시험(高等文官筆記試驗)에합격되엿는데 군은경북경산군자인출생으로일즉이보통학교시대부터 성적이 우량하야보교제사학년에진급하면서고보시험에 합격한사실이 잇서서세인의칭송을받든사실까지잇섯다고한다

揮發油와石油滿載한 發動船一隻燒燼
損害約一萬圓假量

【統營】 지난십사일오후열두시경에 서호진(西湖津) 해안에 매여잇든 휘발유와 석유약이천사백관을 만재한길전원삼랑(吉田源三郞)의 송기인발동선(이십돈)에서발화하야 상품은물론배까지전부소진되고 말엇다 는데 손조원일인이부상을당하고손해는약일만원이라고한다

設校에無誠意타고 面民大會激化
面長과期成會長을攻駁

【烏致院】 충남연기군서면(西面)에서는 거금륙년전에 보통학교를 설립코저 긔성회까지 조직하엿스나 긔본금모집에 대하야 면당국자와 긔성회역원들이 하등의활동이 업섯슴으로 비난이 비등하든차에 작년부터 연기군당국에서는 군내에 일면일교제를 실현키위하야 긔금을 별도로 적립하야 금년말까지는 이천원가량이 될듯함으로 특히 서면장에게 전긔이천여원을 융통하여 주겟스니 금년말까지일천오백원만 조달하면 명년도중에 보통학교를 신설토록주선하겟다고내시까지잇섯스나면당국에서는 그에대하야 하등의로력이업는바 이를알게된전동면(全東面)에서는맹렬히 활동한결과 결국서면으로 대여하려든 이천원의 반분이전동면으로도라가게되자대책을강구코저지난십륙일오전십시부터 서면번암리(番岩里)공회당에서 면민대회를개최하엿섯는데 면당국자와 긔성회역원들의 무성의를 론박공격한후 렴씨하엿든 소전(小田) 군수의 제안으로 긔성회장을개선하는동시에 금년내로 이천오백원을 모집하거나 그러치안이하면 긔성회에서 긔채라도하야 책임을진다면 명년도내에 실현하게다는선언으로 계획진행하기로 하고 산회하엿다는데 신임회장 과부회장은다음과갓다 한다

會長 尹滋璟 副會長 趙鍾植

媤家에서逐出當한 寡婦産母의哀訴
裡里署에演出된一幕悲劇

【裡里】 리리읍본정어느음술 푼모방에 곽영희(郭英喜)(二六)란 녀자가잇스니 이는얼마전까지 남부럽지안케살든중 몰행이도 남편되는정윤복(鄭潤福)(二六)은자긔집 가정의불화로 말미암아 자긔본가인 군산악송정(群山若松町)에서 카두모친을떠고 이된후 의지할곳이 업고더욱이 임신중인 곽영희는 그시가에잇기를 원하엿스나 남편인윤복이가 죽든날부터 나가기를재촉함으로할수업시리리로도라왓스나 갈바업는 영희는 빈집에서삼일밤을 지내고자긔가 해산달임을 념려하여 본정어떤 모방을비려 온후 일주일전에 몰행중에도생남은 하엿스나 첫국밥도업는그는 이웃사람의 동정으로오늘까지 연명하고 자긔시가로생남하엿다는 전보를 햇스나아무 회답이 업슴으로 지난 십삼일 에시가인 군산을가서 자긔사정을보담도어린아이가 젓이나지 안는다고 올므로 왓다고 하며 여러가지 애원을하엿스나 시부정성재(鄭姓在)는 면회를 사절하고시모는 축출을명함으로 할수업시도라오게된 영희는 세상을원망하고 남편이간길을 따르려하엿스나 강보에싸인것을 생각하여 그대로도라오기는 햇스나 먹을것이업는 영희는 할수업시 지난십사일에 리리경찰서에 출두하야 자긔의사정을말하고 시부되는 이는 군산신로동조합장(群山新勞働組合長)으로서남부럽지안케 사는처지이니 먹을것을어더달라고 애원한즉 리리서에서는 리리관할이안이니 군산서로가서 말하라고하면서 차비오십전을 줌으로 영희는그돈을바더가지고 십오일에 군산서로 갓는데 모든인사는 그결과를주목하는반면에 동정의눈물을 마지아니한다고 한다

이번에는財務課員 家畜市場料橫領
元山府廳面目安在

【元山】 원산부청시장계주임판본오랑(坂本五郞)이부하와가티시장사용료 수천원을 횡령소비하얏다하야 원산서에 검거되여횡령,배임,공갈등의죄명으로 송국한지 몃칠이안되여 이십일에 또다시 원산부재무과고원 강××(姜××)가 원산서에 류치되여엄중한취조를 당하고 잇다는데 그문권대 그가 가축시장, 사용료징수사무원으로잇슴을긔회로수백원을 횡령소비한것이 발각된듯하다는바 일반은 이사건의추이를주목하고 잇다고한다

高原農組事件 徐康鈞君出監

【高原】 제일차고원농민조합사건관계자의 한사람인 서강균(徐康鈞)군은일심에서삼년의체형을밧고 이래함흥형무소 에서복역중이든바 지난십륙일에 만긔출옥하여 귀향하엿다고 한다

多年宿望이든 虎鳴公普開校
于先假校舍에서

【洪原】 호명면(虎鳴面)에서는 초등교육긔관이 업슴을유감으로 생각하고 오년전부터 면민이일치하야 호명공립보통학교 설치긔성회를 조직하야 번번히 활동중이라함은 루차본보에보도한바어니와 최근 그운동이 원만한성공을보게되야 새학긔부터 가교사에서 개교를보게되엿다는데 교장은 례천공립보통학교장서우전일부(西宇田一夫)씨가겸임한다하며 교사는 불원간 공사에착수할예정이라한다

地方人事

◀崔瑗在氏(牧師)平壤에서開催된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에出席하얏다가 歸元人事次去十五日本社元山支局來訪

◀李泰烈氏(牧師)平壤에서 열린 第一回全朝鮮勉勵會四年大會에參席하고歸元人事次去十五日本社元山支局來訪

◀大森健太郞氏(新任新義州地方法院檢事)去十五日着任

◀洪光杓氏(一山公普訓導)新任人事次去十一日本報一山支局來訪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얏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鎭興支局 位置 永興郡鎭興里 右任支局長 劉應鍾

右依願解任 支局長 李圃一

吉州支局 位置 吉州郡邑內 右任支局長 徐靑松

右依願解任 支局長 金昌允

謹告

潭陽支局 顧問 金炳駿 顧問 高光卓 右新任함

忠州支局 記者 鄭英澤 仰城駐在記者 金俊卿 右新任함

義州支局 總務兼記者 金鼎河 淸城鎭駐在記者 鄭○開 右新任함

厚昌支局 記者 康正叟 七坪分局 總務兼記者 康鳳賢 同記者 洪寶涔 右新任함

新京支局 總務兼記者 李啓白 下九台駐在記者 李承鮎 右解任함

間島支局 朝陽川分局長 黃國柱 分局位置 朝陽鎭朝陽川驛前

吉州支局 總務兼記者 申貴錫 記者 黃鶴岩 同 鄭義根 右解任함

古邑支局 記者 金喜庚 右新任함

榮州支局 豊基分局 記者 金尙龍 同 辛在得 右新任함 韶川分局 記者 金汝暖 右解任함

北朝鮮蹴球大會 (漁大津)

▲時日 九月二十五日
▲場所 漁大津普校그라운드
◇主催 漁大津文友會
◇後援 朝鮮日報社漁大津支局

內外海金剛探勝團 (金城)

▲時日 出發―九月二十七日午前十一時 到着―十月一日午前零時五十分
▲旅費 十二圓
◇主催 金城驛 朝鮮日報金城支局
◇後援 金城商工、朝鮮日日、朝鮮中央(三支局)

第二回黃海蹴球大會 (翠野)

▲時日 九月二十三、四兩日間
▲場所 茄佐公普校運動場
◇主催 翠野蹴球團
◇後援 朝鮮日報社翠野支局

守部朝鮮人씨름大會 (神戶)

▲時日 九月二十三日四日(雨天順延)
▲場所 兵庫縣武庫郡武庫村武庫川
◇主催 朝鮮人相助會武庫本部
◇後援 本報神戶支局阪神分局

秋夕노리 野談과映畫의밤 (大邱)

九月二十四日밤八時大邱公會堂에서

▲野談『最後의下直』 申鼎言先生

▲映畫 追後發表

(入場은本報讀者에限하고 場內整理費十錢을바듬)

◇主催 朝鮮日報大邱支局

全大邱幼稚園 스마일링大會 (大邱)

▲時日 九月二十四日午後一時半
▲場所 大邱公會堂
(入場은學父兄에限하고整理料十錢을바듬)
▲參加幼稚園 大南 新町 復明 曉星
◇主催 朝鮮日報社大邱支局

探偵小說 艶魔 (81)

徐東山 作 金奎澤 畵

함정 (五)

영호가 이와가치 셰은 나무토막가티 둥구러 넘어지는 것을보는 향초의 이마에서는 땀이배어올는다。 그의 전신은 사시나무가티 떨닌다。 얼골은 백랍가티 햇슥해지고 입술은 검은피가배처다

그는 와들와들 떨니는 손으로 다락문을 똑 똑 두드린다。

조곰잇다가 다락문이 열니며 그다지 죽수업시 생긴사나이가 둘이 눈방울을 휘둘으며 나온다。

뒤엣사람은 손에 묵직한줄망대와 동시바를 들엇다。

영호는 그때 정련도 지다가고 완전히 쭉 버든채 업드려저잇다。

압서나온 사나이가 발끗으로 영호의 옹뎅이근처를 툭 거더차며 혀를 끌끌찬다

「흥! 이자식……뚝뚝한체하고 떰벼싸터니 쌍동 묘ㅣ하다!」

「지금쯤 염나대왕이 조시를 밧겟네」

뒤에 나오든 사나이가 한마듸 거닷는다。

그러나 이말에 향초는 눈을 휘둥그래가지고 영호의 시체를 내려다본다。

「아ㅣ니 여보 몽혼을 식혀서 데려간다드니 죽엿서?」

「그래 죽엿지…내가 죽엿서」

압서나온 사나이가 이러케 빈정거린다。 이말에 향초의누은 화버려지고 햇슥하든얼골은 새파라케 사색이짙니다。

「내가 죽인거 무어야! 나는몽혼약이라길네 그런줄만 알고 매엿지!」

「흥……패ㅣ니 착한체말고 엿다 이거 가지고 너는상해지 마뎌인지 간다면서어서 살살호게 줄행낭이나노아란」

그는 지폐뭉치를 향초의압헤내던진다 향초는 그것을집으려고도 아니하고 발을 동동굴는다。

「글세 이일을 어째!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저러케 죽이게햇스니 이일을 어째!」

「너터러 어쩌라니? 너는 인제 할일다햇스니 어서 집이나 참거…패ㅣ니 우물우물하다가는 교수대가 압호로걸어온다」

그사나이는 눈을 몰량스럽게뜨고 향초를 꾸짓는다。 그러나향초는 그것을 무서워하지도 아니한다

「글세 내가 이이허구 무슨원수가 젓다고 저러케 죽여! 나는 몰나 나는몰나 나는지금경찰서에가서 자수할테야」

「머어째?」

「이년아 가서 자수할려거든 해봐!」

하고 압서나온 사나이는 달녀들어 향초의 손목을 옴켜쥔다。

「자수햇자 네게만 죄가 도라온다……다소곳하고 어서 다러나거라」

발서 좁쌀부대속에다 영호의시체를 밀어너코잇든 뒤에나온사나이가 말을한다。

「우리가 너터러 죽이라고식힌 증거가잇니?……패ㅣ니 자발스럽게 굴다가는 큰코 다친다」

이말에 향초는 아모대답이업시 눈을 내려깔고 섯다가 한숨을 푸ㅣ내어쉬더니 방바닥에 굴너저잇는돈을 집어들엇다。

「천원준다더니 이게 얼마요?」

「백원이다」

「머? 겨우 백원이야?」

「그거나마 고맙나고해라…그래도 우리 수령앗씨가 인심이 조아서 주신거다 한푼도 안주기로니 네가 어데가서 송사를 하겟니?」

향초는 억개를 축 처드리고 원목으로가서 손재이게 짐을 참기엇다。

그동안에 두사나이는 영호의시체를 좁쌀부대에 너허아가리를 처매이고 다시 향초의 이불에다 뚤뚤 말어논는다。

그들은 얼골의 근육하나깟닥 하지아니하고 맛치 이사시집참기는사람이 이불보퉁이 한개쯤짐꾸리듯 심상히 하고잇다。

향초가 짐을 다 챙기엇다 그는 적은 추령크를 들고나서고 한사나이는 큰주렁크를 그리고 또한사나이는 영호의시체를 뚤뚤납는 향초의이불을 억개에 메이고 나섯다。

누가보나 이사하는 짐으로박게는 의심할 사람도 업거니와 맛침 드나드는 사람도 업다。

향초는 사무실에 저녁때마리서 잠시 시끌갓다 오겟노라는 말을해둔러이라 역시의심을 밧지안하엿다。

장교에서 기다리는 하룰차에 추렁크두개와 이불가치보이는 시체를 실엇다。

향초는 달은 자동차로 정거장으로 나갓다。

경성역에서 하룰차는 잠간머물너 향초의 두개추렁크만 내려노코 그대로 용산쪽으로향하여 달니엇다。

常習便秘에 サロミン (사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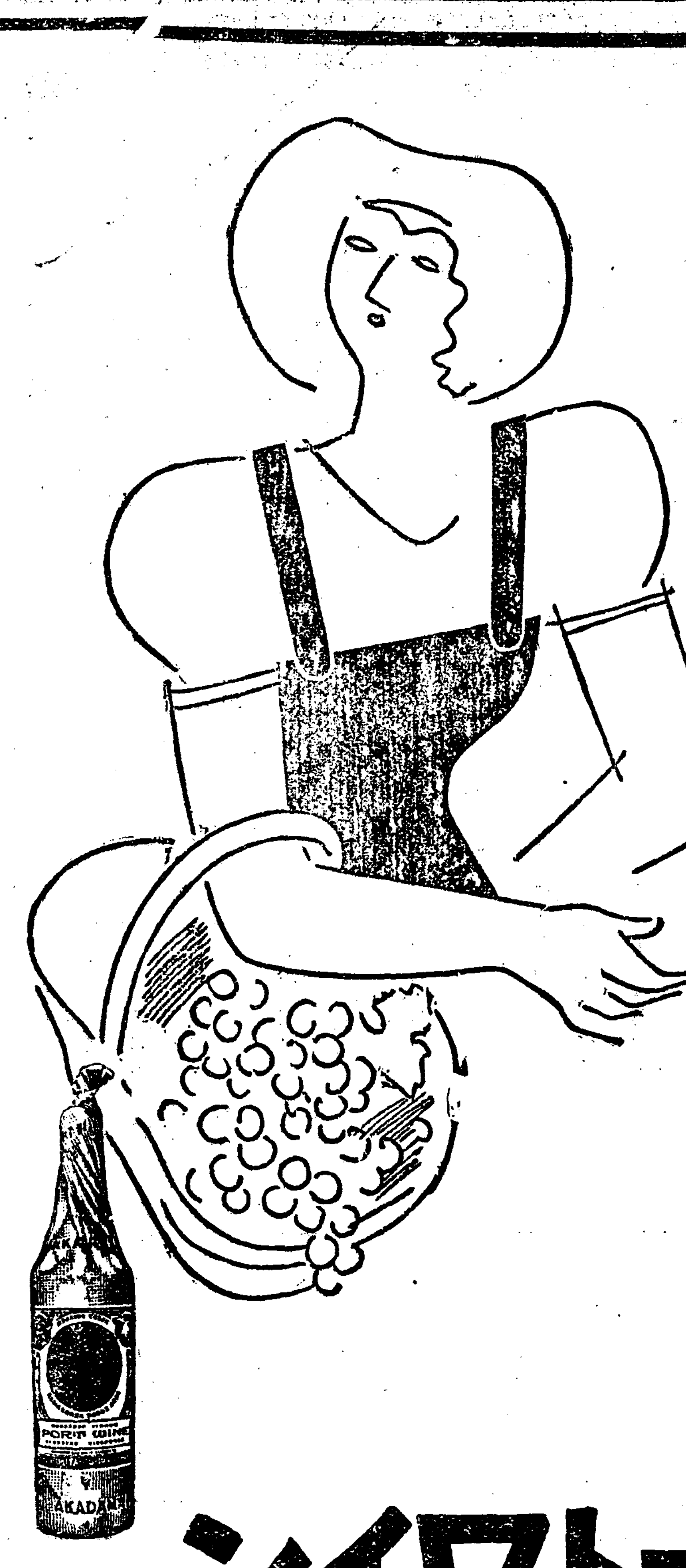
西崎美[illegible]博士 指導創製

아도니ㅣ性·消化不良性·神經性常習便秘、或은妊娠中에잇는婦人、結核患者等의常習便秘에써서効果適切、習慣이될걱정업고、또副作用絶無함

定價 三百錠一円五〇

(一回五錠一日三回)

全國有名藥局에販賣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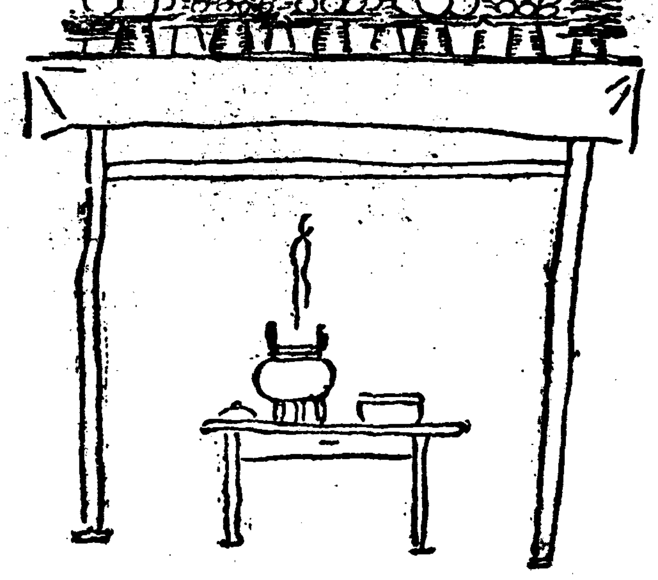


青春의여러분

赤玉을마십시요、赤玉은흘너가는青春의부레ㅣ기! 그한잔한잔에피를돕고、살이쪄서、당신은明日도、亦是빗나는青春! 그것은당신의것입니다。

美味 滋養 葡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포도와인)



만곡식은 익엇습니다

우리의명절! 추석음식은 아지노모도로 맛잇게하십시다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9—V

●學校의成績

은頭腦가第一이오◆머리가무겁고흐려서기음대로工夫가아니될時에는곳

ノーシン (노ㅣ신)

을잡수시오◆頭腦가明快해저서工夫가저절로됩니다◆아모藥店에고잇소◆

金鶴香油 (금학향유)

頭髮은女子의最大魅力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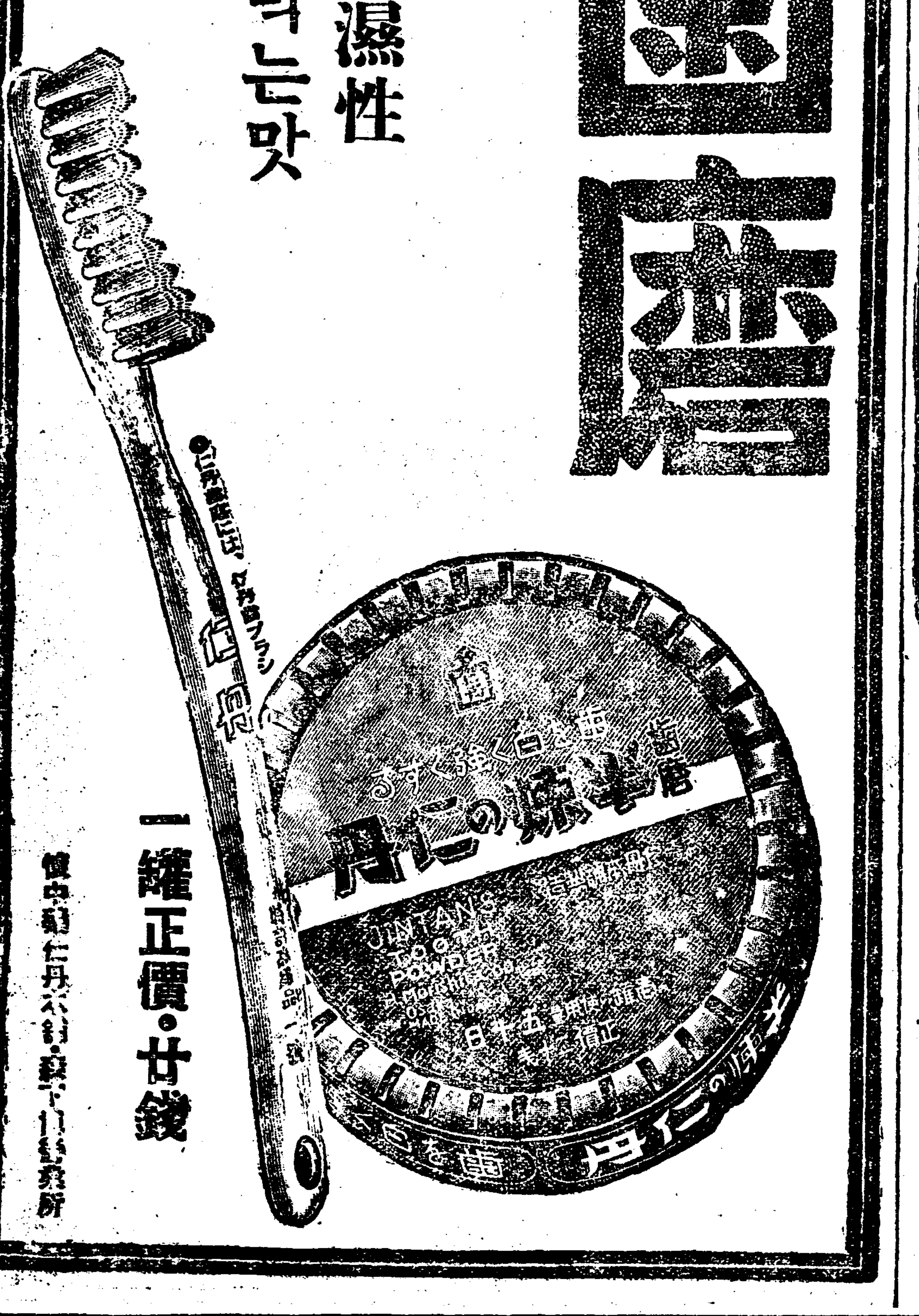
化粧中에第一必要한것은臙脂、白粉이안이라美髮이오、豐富하게 드믄頭髮이爽風에나부기는風情은그럼에도比할수업소。

本舖 株式會社野村商店

半煉의仁丹齒磨

가을——의歡喜는、半煉의罐을 살작열어서 축축하게、齒솔에 무든半煉特有의 爽快한 濕性 그러고、슬적슬적닥그면恍惚하게되는이! 닥는맛

半煉은一人一罐五十日은넉넉히쓰는第一經濟인齒磨요



●仁丹歯磨には、仁丹歯ブラシ

一罐正價·廿錢

製造部仁丹本舖·森下博營業所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頭取 有賀光豊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個及內地大阪에支店잇合

京城 金 金銀地金賣買 合資會社杉山商會

高價買入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九月十九日낫부터三日間 巨彈巨彈의또다시巨彈 當廿三廿四兩日은晝夜三回興行 낫十一時半 三時半 七時半 每日二回낫一時 밤七時四十分 始映 大衆料金 階上 十五錢 階下 十錢 均一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時代名畫 興津의新藏 全八卷

市川右太衛門 大江美智子主演 痛快하고씩씩한一大名畫작보라

메도로社超特作品 猛獸探險 도레이다혼 全十三卷

하리케리氏에도나부스氏力演◎ 거야밥노터옥이나여러분올듣레 이계할名畫올시다작한번보시라 次週世界的大名畫 暴君네로

엉터리海水浴公開 올여추석에는낫밤三回公開하오니부듸부듸작와주서요、

鍾路五丁目 電光一七五五 第一劇場

九月十三日堂堂大公演 見!! 初秋、映畫シーズンに君臨する此の待望久しかりし歐洲名畫二名篇!!

始映時間晝の部十二時四十分 夜の部六時五十分

上映順

1、短篇漫畫

(晝の部十二時四十分 夜の部六時五十分 より)

2、獨逸ウファ特作日本版 監督ゲルハルト・ラムプレヒト 主演ロルフ・ヴエンクハウス

△少年探偵團 八卷

未地の冒險への素晴しい好奇心——貴方の心の中にあの幼き日のわくわくした感激が甦つて來るでしよう

3、獨逸ウファ超特作日本版 監督グスタフ・ウツキイ 主演ルドルフ・フオルスター

△朝けや 九卷

世界大戰!! 世界中を敵に廻した獨逸! 男子の殘らず戰線に立ち女子の殘らずが國を守つた悲壯

明治町一 電本 二○六 浪花館

當ル十八日封切(三日間) 初秋第一回サビース名畫週間 階下席大衆料金 廿錢均一

新興キネマ超弩級時代劇 忠臣藏シーリズ第二回作品 雜誌『富士』所載 原作小島政二郎 監督廣瀨五郎

元祿吹雪魂の影繪 全拾卷

主演 小金井勝熱演 嵐寬德、松本田三郎、五十鈴桂子助演

俵星玄番の烈烈たる義俠物語り 大衆的興味滿滿の新講談映畫

フオックス超弩級日本版 ワルタ—・ナング監督 ジユリアン・トムソン原作 舞臺劇映畫化

女性暴君 全八卷

暴君ネロの主演 エリツサ・ランデイ主演

新興キネマ特作現代劇 原作 片岡白虹 監督 川浪良太

酒は涙か溜息か 全八卷

主演 杉狂兒、高津慶子

永樂町 電本 三○二四 中央館